

기독교적 역사 이해

A Christian View of History

기독교 사관의 본질

이상규

- I. 사관, 기독교 사관이란 무엇인가?
- II. 기독교 사관의 기초로서의 히브리적 역사 이해
- III. 기독교적 역사 이해
 - 1. 창조, 타락, 구속(구속사관)
 - 2.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섭리사관)
 - 3. 역사의 의미와 목적(목적론적 사관)
- IV. 맺는말



이상규,

1962년 경북 영풍군에서 태어나 고려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수학(M. Div.)하였으며 고신대학 대학원을 졸업(Th.M.)하고 호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Th. D. Can.)했다. 현재 고신대학 신학과(교회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 「성경연구의 이론과 실제」, 「성경연구 입문」, 「교회사 연구의 제문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행복한 가정생활」(공저) 등이 있다.

Abstract

Discussion is, in this essay,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looks at the meaning of the view of history. Since historians view the past from some perspective, there has been various views of history. Therefore the question naturally arises: how we Christians view of history? In the brief treatment of the various views of history the writers suggested a Christian view as the most comprehensive and normative perspective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urse of human events. If Marxist is basically a valid system, Marxist versions of history will be basically valid. If Marxism is a flawed system, the view of history it produces will also be flawed. By the same token, the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human past must be judged by the validity of Christianity itself. As we believe the Bible is true, and Jesus is really "the way, and the true, and the life", the Christian view of the past will be the clearest of all.

In the second section, the writer examined the Biblical or Hebraic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s the basis of Christian view of history. These are largely explored from the Scriptures and are discussed both for their intrinsic importance and as exemplars of the need for Christian perspective on history.

In the third section of the essay the writer examined som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Christian view of the history which should help us in our interpretation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As mentioned above Christian historians found in

Biblical history a source and base for their view of history. First of all, biblical teaching that God's work of creation, the Fall of mankind through sin, and Redemption through the incarnation,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makes the basis of our discussion. Christians do not emphasize the rational side of life as the Greeks had. Christians historians emphasize a new philosophical dimension into history with their sense of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as linear, not merely cyclic, and centered in Christ's incarnation or cross. Some Old and New Testament passages suggest that there has been special providence of God, and suggest special times of Divine action in history. Therefore, at the very heart of the Christian view of the past are God's work in history, His providential action in history and anticipation of a coming reign of righteousness beyond history. History has a teleology that is revealed in a divine plan during the course of history and that will be consummated at the end of history.

I. 사관, 기독교사관이란 무엇인가?

사관(史觀, *Geschichtsanschauung*, view of history)이란 역사에 대한 견해, 해석, 관념, 사상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 혹은 역사에 대한 인식(眼識)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관이란 역사에 대한 관점, 즉 역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의 사관의 기원은 사물의 생성, 소멸을 시간적으로 뚜렷이 의식하기 시작한 유대-그리스도교 세계에 있으며 그 대표적인 표현은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 - 430)의 「신국론」(*De Civitate Dei*, 413 - 426)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후로 여러 유형의 사관이 많은 역사가와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관들을 구분하는 방법 또한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역사세계의 의미, 목표, 가치 등을 사변적으로 논한 역사철학으로서의 사관(예; Augustine, Kant, Hegel, Marx 등), 역사세계의 변화·발전이 일정한 패턴이나 단계를 거치면서 생성, 변화, 발전한다는 역사법칙론으로서의 사관(예; Vico, Marx, Spengler, Toynbee 등), 역사지식의 객관성과 주관성·역사인식의 방법론 등과 관련된 사학이론으로서의 사관 등이 그것이다.

또 보다 근원적으로 역사의 동인(Cause)이나 과정을 파악하는 문제와 관련해 역사를 이해하는 사관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역사를 현상세계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예컨대 이념 혹은 정신 등의 관계에서 현상세계를 파악하려는 관념론적 역사이해(예, Kant, Fichte)이고, 둘째로는 역사를 현상세계 안에서, 즉 시간세계 안에서 일어난 사건 그 자체에서 역사의 법칙과 질서를 찾으려는 실증주의적 역사이해(예; K. Marx), 셋째로는 역사에서의 동인과 역사과정을 단순한 역사 내적인 인과론으로 보지 않고 역사의 과정과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려는 기독교적 역사이해가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독교적인

역사이해, 즉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적 역사이해(**Christian View of History**)란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것이 타당한 관점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기독교적 역사이해가 역사에 대한 참된 관점이 아니라면 구태여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 동인, 과정, 목표 등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해석으로서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신앙체계 그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가 근본적으로 타당한 체계라면 마르크스적인 역사해석도 근본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가 오류에 가득찬 이념체계라면 이 사상에 근거한 역사해석도 오류에 가득차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같이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정당성은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¹⁾ 만일 기독교 신앙이 신화(神話)로 이루어진 조작된 신념체계라면 우리는 신화적인 역사관밖에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면 기독교 역사관은 모든 역사관 가운데서 가장 올바른 역사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체계 위에서 기독교적 역사이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에 관한 바른 설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II. 기독교 사관의 기초로서의 히브리적 역사이해

그리스도인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는 히브리적 역사이해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헬라인들의

1) Roy Swannstrom, *History in the Making*, IVP, 1978, p. 34.

역사이해의 문제를 언급해 두고자 한다. 역사에 대한 회랍적 인식은 히브리인들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고대 회랍인들은 우주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밀폐된 실체이며 시간이란 하나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동일한 궤도를 순환하는 수레바퀴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들은 역사에 대한 순환론적(循環論的) 견해(Cyclic view)를 가지고 있어서²⁾ 역사란 뚜렷한 출발이나 종말이 없이 무한히 계속되고 의미없는 반복만이 있는 영원회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시간세계 안에 새로운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역사에 대한 회귀적 혹은 순환론적 이해는 바로 운명론(運命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들의 역사관 기저에 흐르는 뚜렷한 사상은 운명론이었다.³⁾

이와 같은 회랍인의 역사이해는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확립된 것이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

2) 순환적인 역사이해는 만물의 회귀성(回歸性)에서 나왔는데, 만물이 회귀한다는 관념은 동방의 천문학에서 발생한 후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 사상가들에 의해서 더 한층 발전되었다. 그들은 세계가 제우스(Zeus)신에게로 돌아가는 세계적 대화(大火, Πῦρ παῖς)의 교리, 다시 그 교리로부터 새 세계가 나온다는 믿음을 발전시켰다.

3) 역사를 이해하는 그리스인들의 의식 속에는 '운명론'(μοῖρα)이 자리잡고 있다(F. M. Cornford, *From Religion to Philosophy; A Study in the Origins of Western Speculation*, New York, 1957, p. 15). 그것은 절대적이어서 심지어 지고(至高)의 신 제우스(Zeus)조차도 이 운명에 복종해야 했다. 이 운명은 회랍철학의 발달에 따라 피타고라스의 수(數), 이오니아(Ionia)학파의 존재(存在), 그리고 마침내 플라톤의 관념(觀念, ἰδέα)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形象, μορφή)으로 탈바꿈했으나, 이 모두가 운명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참고: 손봉호,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성광문화사, 1978, p. 245). 시지푸스 신화와 같은 회랍신화에서 보여 준 것처럼 영구불변한 운명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며 따라서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상이 그리스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맹목적인 운명이 역사를 지배하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운명의 여신의 회비(喜悲)를 참아내는 것 뿐이었다.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이 운명이 회랍인의 역사이해에 자리잡고 그들의 역사관을 결정했던 것이다.

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역사의 순환을 믿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인들은 역사를 자연과 천체운행을 통해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트만(Rudolf Bultmann)은 그리스인들은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았다고 하였다.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새로운 어떤 전개나 발전이 아니라 단순한 과거의 반복에 불과했다.⁵⁾ 역사를 끝도 시작도 없는 무한한 반복으로 믿었던 그리스인들은 역사에서 아무 의미도, 목표도 찾지 못했고, 역사에서의 진보개념(The idea of progress)을 가질 수도 없었다. 역사적 현상이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것의 재발이며, 미래라는 것도 과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헬라인들이 역사를 순환론적, 혹은 회귀론으로 이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들은 인간만이 아니라 신들까지도 자연의 순환과 함께 운명론적으로 순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⁶⁾ 이

4) R. 볼트만, 「역사와 종말론」, 대한국독교서회, 1966, p. 13.

5) G. Florovsky, "The Predicament of the Christian Historian", in *God, History and Historians*, ed. by McIntyre, N. Y. : Oxford Univ. Press, 1977, p. 429.

6) 헬라인들의 회귀론(回歸論, the theory of cycles) 혹은 순환사관(循環史觀)은 다소 형태를 달리하지만, 그 이후에도 반복하여 나타났다. 마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61-180)는 그의 「명상록」(Meditations)에서 사람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40년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 Aurelius, *Meditations*, XI; Roland H. Bainton, *Yesterday Today and What Next?*, Augsburg Pub. House, 1978, p. 22). 순환론자였던 그는 순환의 주기를 40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역사에 대한 순환론적인 이해는 스키피오 애밀리아누스(Scipio Aemilianus)가 칼타고를 점령한 후 통곡했다는 기록에서도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도 통곡한 것은 5만여 명을 노예로 팔아 버리는 것이 애석해서가 아니라 로마도 언젠가는 몰락하여 똑같은 운명의 날을 맞을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다(Polybius, *Historia* VI, Loeb Library, pp. 438-439; Bainton, *Ibid.*, p. 23. 회람의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끼친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실례들은 Walther Rehm, *Der Untergang Roms in*

렇게 역사와 자연을 동일시한 자연중심주의(Nature - Centrism)는 역사를 운명론적인 순환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역사의 의미나 역사의 목표를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역사에서의 진보의 개념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회람적인 회기론을 극복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 역사란 하나님의 (역사)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 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하나님의 천 지창조에 대한 신앙은 회람적 자연중심주의를 극복하게 했다. 즉 자연은 신비로운 자존실체(自存實體)가 아님을 알게 됨으로 자연중심사상을 탈피 할 수 있었다. 즉 히브리인의 하나님 중심사상(God - Centrism)은 히브리인들 로 하여금 자연을 비신격화(dedeify)하였다. 즉 자연은 신비로운 정영(精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ex nihilo)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킬수 있었고, 역사

abendlndischen Denken, Leipzig, s. 11ff.를 참고할 것). 이 회람적 회기론은 역사과정을 국가의 성(盛), 쇠(衰)의 반복으로 본 16세기 마키아벨리(N. B. Machiavelli, 1469-1527), 역사를 순류(順流, Corsi)와 역류(逆流, ricorsi)로 이해한 17세기의 비코(Vico Giambattista, 1668-1744)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근대에 와서는 스펡글러(Oswald Spengler, 1880-1936)와 토인비(A. J. Toynbee, 1889-1975)에게서도 회기론의 부활을 본다. 스펡글러는 역사는 결정론적인 법칙에 따라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역사의 기본 단위는 문화라고 보았고(Alfred A. Knoff, *The Decline of the West*, I, 1957, p. 21) 이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유기체'로 보았다. 문화는 자기충족적 실체로서 역사 속에서 발생하며, 생물학적 유기체나 계절과 같이 생명주기를 반복한다고 보았다(위의 책, pp. 107-110). 토인비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토인비는 자 신의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시련에 처한 문명」(Civilization on Trial)을 비롯한 그의 여러 저서에서 어거스틴의 「신국론」(De Civitate Dei)을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역사의 순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앞서 언급한 스펡글러처럼 문명의 순환을 받아 들이게 했다. 토인비는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문명은 생성, 성장, 쇠퇴, 사멸의 과정을 겪었다고 보았는데, 적어도 21개의 문명 단위가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결국 저들은 역사과정을 유기체와 똑같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태적인 것으로 보았던 바 결국 회람적 역사관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그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 역사는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일원론적(一元論的)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한 시작과 함께 분명한 종말을 가진 직선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역사이해는 역사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것이었다. 그래서 저들은 역사의 무한한 회귀만을 믿었던 운명론적 역사이해와는 달리, 역사는 목표를 향한 선적(線的)인 과정이라는 직선적 역사관(liner view)을 가졌던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히브리인들의 역사이해 또한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목인이었던 히브리 민족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는 삶을 누리지 못했고 늘 새로운 초장을 향해 떠나야만 했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새로운 삶의 장(場)을 향해 떠나야 했던 히브리인들은 과거나 현재에 집착할 수가 없이 언제나 새로운 내일의 터전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었던 것이다(히 11:13 - 14).

이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이교적 시간관에 기초한 회랍인들의 회기적인 이해와는 달리 역사에 대한 직선적 이해를 갖게 되었다.

역사과정에 있어서도, 의미없는 반복이 아니라 유의미한 진보이며 분명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또 그 역사과정 속에서 그들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초역사적인 이념을 가진 역사인식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편사(Universal History) 개념은, 역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일원론적인 과정으로 파악한 히브리인의 역사이해에서부터 시작된 셈이다.

쿨만(O. Cullmann)의 말처럼 히브리인들은 처음(창조)과 나중(종말)이 뚜렷한 역사관의 소유자였기에 회랍인들처럼 옛 것의 반복이나 지난날의 황금시대에 대한 회상보다는 무한히 열려진 약속된 미래를 향한 직선적인 진보사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역사 이해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저들은 역사의 중심을 정치(政治)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실재적 경험과 행위에 서 찾았다는 점이다. 그 백성이란 회합적 의미의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이웃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백성이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경험, 즉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 혹은 형벌이고, 그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하는 것이 역사의 동인(動因)이며, 그것이 축복이나 저주냐를 결정했다고 보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역사를 보았던 것이다. 또 헬라의 역사가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지만 히브리 사가(史家)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상시키기 위해 역사를 기록하였다. 헤로도투스(Herodotus, B.C. 484 - 425)가 「역사」 서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 행위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회합인들의 위대하고 놀라운 행위들이 그 영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술했지만 히브리 사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God who acts)을 제시하기 위해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즉 히브리 사가(史家)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役事)를 기억케 함으로써 번영이나 파괴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저주냐를 결정하는 미래에 직면하는 책임을 환기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편찬은 그리스적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설교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지만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창조

7) Roy Swanstrom, op. cit., p. 36.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역사(役事)의 정점은 그의 구원계획이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전개되는 과정이었다.

Ⅲ. 기독교적 역사 이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역사이해, 즉 기독교 사관의 본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 역사 이해는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역사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는 분명한 시작과 함께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계획이 펼쳐지며 역사의 분명한 종말, 즉 최후심판을 믿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구원사관(救歴史觀) 혹은 구속사관(救贖史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사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즉 역사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섭리적 관점을 섭리사관(攝理史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사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사관을 목적론적 사관(目的論的 史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속사관, 섭리사관, 그리고 목적론적 사관이란 모두 기독교 역사관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1. 창조, 타락, 구원(구속사관)

첫째로 기독교 역사 이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per verbum) 무에서(ex nihilo)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신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많

은 별들과 자연계의 미미한 현상들, 그리고 복잡한 인간의 삶이 다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역이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역사를 설명하는 근거이자 기초이며 전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역사에 관한 모든 토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창조신앙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동기이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피조된 인간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었다. 그래서 마치 인간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체인양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무모한 반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오늘 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소외가 결국 다른 인간과의 정상적인 관계도 파괴하였다. 결국 인간 삶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해 오염되었다. 모든 불의, 탐욕, 악의, 살인, 분쟁과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의 결과이다(롬 1:29 이하). 인간 역사의 비극적인 상황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 반역의 결과들인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구속사 혹은 구속사관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악에 의해 지배받던 옛 시대는

그리스도에 의해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패배한 세력에 불과하며 주님의 다스림에 기여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역사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목적론적이며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이다.

따라서 역사는 결코 역사 그 자체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의 섭리적 경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혼돈과 무의미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있는 합목적적 진행인 것이다.

희랍인들은 위대한 인간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역사를 기록했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즉 그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출 12:24-27)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뜻 때문이었다. 그들의 후손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를, 혹은 그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나고 물으면(수 4:6) 지난날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가시적 교육의 교과서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궁극적 의미를 묻는 질문들은 역사가의 영역밖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랑케(Leopold von Ranke)의 전통을 따르는 많은 소위 ‘과학적 역사가’(Scientific historians)들은 기독교신앙과 역사는 상호관련성이 없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역사를 방법에 있어서는 과학적이며, 어떤 궁극적인 동인(final causation)과 관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⁸⁾

8) Earle, E. Cairns, *God and Man in History*, Baker Book House, 1979, p. 83.

그러나 성경이 보여 주는 역사의 전망은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의 궁극적 실재와 그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정점(pivotal point)이다.

2.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섭리사관)

둘째로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곧 하나님의 통치를 신앙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성경에 분명하게 예시되었다. 창세기를 마감하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간섭과 통치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미 요셉은 “나를 이리(애굽)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 45:8)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고백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치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B.C. 587 - 515)은 “그들(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렘 24:5)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벨론은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도구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국가의 주권과 경영 뿐만 아니라 제국의 흥망과 성쇠도 다스리는 분으로 선포되고 있다(신 32:8, 단 2:21, 암 9:7, 행 17:26).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역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섭리적 준비, 즉 때가 찬 경륜에 대해 말하고 있다(갈 4:4).

이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간섭과 다스림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역사가 인간의 주권 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범위까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역사의 동인을 내재적 인과론(因果論)이나 법칙성에서 찾지 않고 궁극적 실재와 관련시킨다. 하

나눔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에 개입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역사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역사에 있어서의 궁극적 동인(動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르크스(K. Marx, 1818-83)의 유물사관이다.

마르크스는 움직이는 물질(matter in motion)이 기본적인 실재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 뿐만 아니라 신의 역사간섭, 즉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는 또 인간의 영적, 정신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그는 “인간은 그가 먹는 것 바로 그것이다.”(Der Mensch ist das, was er ißt)라고 한 포이엘바하의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했을 만큼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파악하고, 우리가 보통 인간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을 부산물로 취급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순전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았다. 즉 그는 경제적 결정론에 따라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투쟁이 역사의 근본요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리적 환경론, 권력에의 의지, 진보의 법칙 등을 역사를 지배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했고, 18세기의 자연신론자(Deism)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제할 어떤 자연법칙을 확립해 놓고 그 이후로는 역사에의 직접적인 개입을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믿는 주장이다. 첫번째 경우가 오직 인간에 의한 역사를 주장했다면, 이 경우는 오직 하나님에 의한 역사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이라는 주장은 어거스틴에 의해 개진되었다. 그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했던 펠리기우스파(Pelagian)의 이단교리에 대항하기 위해 이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 어거스틴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든 역사적 현실은 하나님의 뜻의 구현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치 않음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평계거리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비판은 정당하지 못하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믿었던 어거스틴의 생각은 인간의 의지와 역할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였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인간을 단지 기계적 존재로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형극 연출자의 손에 들리워진 인형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이 말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엄격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이며 타자기나 피아노 건반과 같은 기계적인 존재일 수 없다. 어거스틴은 역사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했을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입장을 신학적인 결정론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세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통치하시며 역사에 개입하시지만 인간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즉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개입·간섭과 더불어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상보적(相補的)이고 중화적(中和的)인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허버트 버트필드(Herbert Butterfield)인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와의 관계를 위대한 작곡가와 잘못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의 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⁹⁾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최초로 연주하는 한 편의 관현악곡과 같

9) H. Butterfield, "Providence and the Historical Process", *Christianity and History*, London: Collins Press, 1964, pp. 95-96.

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presumption) 속에서 우리는 각자 마치 자기가 그 악보의 작곡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자신의 특수한 역할을 주도적인 것으로 연주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는 제2클라리넷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며, 심지어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악보의 다음 페이지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조차도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미 함께 연주했던 부분 이외의 것을 알 수 없다. - 그리고 이 비유를 더욱 믿을 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곡가 자신은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 순간 그것을 작곡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틀린 악보를 연주한다면,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소절들을 다르게 바꾸게 된다. 그것은 마치 작곡가가 자신에게 “만일 우리가 즉각 장조에서 단조로 넘어가면 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작곡자에게 보여 줄 때까지 그 악보의 작곡자는 정말로 큰 신축성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이 실제로 연주되어서 과거의 사건이 될 때, 우리는 그 음악이 마치 작곡가가 항상 의도했던 것처럼, 즉 사건의 전과정이 처음부터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상상하도록 유혹 받게 된다.”¹⁰⁾

이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과의 관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으느냐가 아니라 그 개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10) 이석우 편저, 「기독교와 역사사상」, 성광문화사, 1981, p. 157를 참고할 것.

서 역사 속에 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의 의지와 역할은 어떻게 행사되는가? 인간은 ‘분노와 열정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 문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만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가 되고 말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성이나 윤리성,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거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임을 보여 주셨다(창 3:8-20).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함께, 자기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묻고 있다. 정리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완전하게, 그리고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입장이나 버터필드의 입장, 혹은 제3의 해결책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독교적 관점은 역사에서의 궁극적인 동인을 창조자이자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역사간섭과 통치를 신앙하는 것이다.

3. 역사의 의미와 목적(목적론적 사관)

세째로 역사에 있어서의 의미와 궁극적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에서의 의미와 역사의 궁극적 목적을 강조한다. 모든 역사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설정한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한 직선적 전진이다. 즉 역사는 에덴동산에서의 황금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역사의 목표는 역사 밖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통치이다. 이렇게 볼 때 역사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롬

11:36)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계시이다.

이런 점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순환론과는 다르다. 세계사는 하나의 전체로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과정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변화, 발전, 또는 진보의 개념이다. 이 목적론적 사관은 히브리인의 역사 이해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시간적 연속에 대한 성경(특히 구약)의 계시는 뚜렷한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회합적인 순환사관을 찾아볼 수 없다.¹¹⁾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시작)과 끝(종말)이 분명한 목적있는 이야기들이다. 이와같이 역사에서 목적을 설정하는 목적론적 사관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었는데, 17세기의 보쉴(Jacques Bossuet, 1627 - 1704)의 보편사론(Discours sur histoire universelle, 1681)이나 17세기의 헤겔의 역사철학에 나타난 신정론(神正論, Theodizee; Rechtfertigung Gottes), 20세기의 토인비의 비교 교회론 등도 목적론적인 종교사관의 측면을 갖고 있다. 오늘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까지도 목적론적 사관을 계승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르크스주의다. 그들은 계급없는 사회를 향해 움직이는 역사의 목표를 주장하였다.

계몽주의 이후 기독교적인 목적론적 사관은 진보사상의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 이념의 세속화라고 할 수 있다. ‘역사철학’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1765) 볼테르(Voltaire, 1694 - 1778)는 인류문명의 직선

11) 구약 성경이 보여 주는 역사 이해가 순환론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커티스(J. B. Curtis)인데 그는 “성경적 역사철학에 대한 한 시론”(“A Suggested Interpretation of the Biblical Philosophy of History”,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4, 1963)에서 다윗의 통치와 유사한 메시아의 통치,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배교 - (이민족에 의한) 속박 - (속박하에서의 사죄와) 간구 -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7회에 걸친 주기적 반복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다윗의 통치와 유사한 메시아의 통치는 다만 유추이지 반복되리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사사기의 경우는 인간의 계속적인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적 진보를 믿었던 선구자였는데, 그는 「제민족의 풍속과 정신에 관한 시론」(Essai sur les moeurs et l'esprit des nations, 1756)과 「루이 14세 시대사」(Siccle de Louis XIV, 1751) 등을 통해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루이 14세 시대 등을 역사상 가장 찬란한 네 시대로 규정하고, 역사란 무지와 암흑의 때로부터 이성의 광명의 때로 진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진보사상은 뒤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t, 1727 - 81)와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1743 - 94)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특히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와서 이 진보에의 이상은 만개하였다.

그러면 역사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어떻게 역사 안에서의 진보의 이상으로 세속화되었는가? 그 해답은 서구역사와 사상 속에 숨어 있는데,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위치에 대치되고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 충족성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소망의 자리에 인간 이성에 의해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설정하였다. 어떻게 보면 진보에 대한 이상은 기독교적 교리와 인간중심적인 낙관론 사이에 태어난 서자(庶子, bastard offspring)¹²⁾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역사란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를 향한 진보의 과정으로 믿기 때문에 역사에서의 의미를 찾는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타락의 신념이 쇠퇴하여 갔을 때 진보주의 사상이 인기를 얻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악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인위적인 지상의 나라(유토피아)로 대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IV.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회랍의 회기적인 역사 이해와는 달리, 히브리적 역사

12) Roy Swanstrom, p. 62.

이해를 계승한 기독교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몇 가지 근원적인 주제들로 설명하였다.

회람적인 순환론은 인간은 물론, 자신들의 최고 신인 제우스까지도 포함하는 운명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역사에 대한 사상은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히브리적 역사이해는 기독교 역사관의 근간을 이루며 초·중세 기독교(특히 어거스틴)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대두 이후 이 기독교적 역사 이해는 세속화되었는데 그것이 진보주의적 낙관론이다.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위치에 인간의 이성을 대치하고, 하나님 나라 대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설정했던 것이다. 특히 볼테르에게 와서 역사는 초월적 경륜이나 신의 뜻에 의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자율적이며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며 주인인양, 역사는 인간의 그림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인간을 전적으로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역사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배제되고 인간이성을 절대시하는 합리주의 사상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래로 다양한 역사관들이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에 기초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그 역사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있다. 따라서 역사는 맹목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고’ 있다(고전 10:11-12). 이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회귀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날’을 대망하고 있다.